오래된 추억처럼 상기된 풍경



류혜숙의

군위 화본 역•화본 마을

기차역 광장에 사람들이 서성인다. 아이들과, 엄마와 아빠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연인들이다. 그들은 기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기차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 기차역 광장이 놀이터인 양 아이는 신나서 뛰고, 테이블이 놓인 고목의 정원에서 싸들고 온 간식거리를 먹는다. 도착하는 사람도 떠나 는 사람도 드문 이 역에서, 드물게 도착하고 떼>는 기차를 만나 손을 흔들고, 이곳이 오래된 추억인 양 볼이 상기된 사람들. 기차역 광장에 사람들 서성인다.

♦군위 호년역에서

작년 시월, 화본역에 서 있었다. 하얀 창틀을 가진 연 핑크  
색 건물이 예했던 간이역. 그 사이 역은 모습이 바뀌었다. 나  
무색 창틀에 벽면은 조금 더 어두운 핑크색조로 바뀌었고 지  
붕도 문도 달라졌다. 파란색 바탕에 딱딱한 모양으로 쓰여 있  
던 화본역 간판은 하얀 바탕에 예스러운 글씨체로 바뀌었다.  
맑은 창속에 역무원 아저씨 한분이 등 돌려 앉아계신 모습만  
여전하다.

청량리, 강릉, 동대구, 부전, 하루에 4번 서던 기차는 이제  
경북관광순환테마열차를 포함해 상히행선 하루 3차례씩 열차  
가 선다. 역사 앞에 있던 박해수 시인의 화본역’ 시비는 옆으  
로 옮겨졌다. 시비 앞에는 커다란 이야기책이 놓여 있다. 삼국  
유사의 내용을 아이들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놓은 책이다.  
한 장 한 장이 너무 무거워서 넘기기가 좀 힘들긴 하다. 아빠들  
의 힘이 필요하다.

역 옆에는 아름드리나무가 낙엽을 떨구는 아름다운 정원이  
생겼고 사람들이 시간을 쌓아두는 테이블도 놓였다. 더 이상  
달리지 않는 3량의 기차는 이제 곧 카페테리아가되려고 단장

중이다. 기찻길을 가로  
질러 급수탑까지 가는

산책로도 만들어져 있  
다. 급수탑은 문을 새것  
으로 달고 개방해 놓았  
다. 두개의 창만이 하얀  
까만벽면에 ‘석탄정든,  
석탄절약’이란 문구와  
어지러운 이■이들의 낙  
서가 웃음난다.

화본역의 출발은 1938  
년, 한때 증기기관차의  
종착역이었던 이 역은  
이후 오랫동안 아름다

일본강점기 당시 증기기  
관차에 물을 공급해 주  
었던 화본역의 급수탑.  
들어가 볼 수도 있다.

운 간이역으로 소문나 있었다. 지금의 변화는 문화체육관광부 가 추진하는 ‘폐선철로 및 간이역 관광자원화 사업’ 으로 ‘화 본역 그린 스테이션’ 사업이 선정되면서부터다. 리모델링은 2012년까지 계속된다고 한다.

♦화본마을

역을 미주보고 역전상회가 있다. 자전거를 탄 이주머니가 역 전 상회 앞을 잠시 서성이다 가신다. 무슨 바쁜 일이 있었을까, 오늘 역전 상회는 휴업이다. 금성 상회 앞 도로변에서는 할머니 세 분이 고추 꼭지를 따고 계신다. 삶은 달길이 오늘의 간식거 리. 느릿느릿 다가온 할아버지, 권히는 달걀 하나를 맛나게 드신 다. 나리 식당엔 아무도 보이지 않고 밀성반점도 금일휴업이다. 1962년에 문을 열었다는 성희 다빙의 문만 활짝 열려 있다.

길 양쪽 담벼릭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다. 길을 따라 걸으면 일연 스님과 김유신 장군을 만난다. 마을 회관 앞에는 이력을 알 수 없는 커다란 고인돌이 앉아 있다. 반점 옆 골목길로 들어 서면 낡은 철도관사 2채가 남아 있다. 관사 앞에 배추들이 예 쁘게 자라있다. 건물도 내부의 다다미방도 세월의 무게를 너 무 많이 받았다. 이 관사도 변화될 예정이다. 500년 전에 개척 되었다는 이 마을은 증기기관차의 시절에 멈춰있는 듯 하지만 이제, 지금, 새로운 변화를 앞에 두고 있다.

♦마을의 한 귀통이 추억의 학교 ‘엄마아빠 어렸을 적에’

풍금이 있는 교실, 모서리가 반드르르한 나무 의자와 책상, 도시락이 올려진 난로, 누군가의 일기장이 놓인 선생님 잭상, 출석부가 있는 교탁, 그리고 벽에는 반공 포스터와 그림일기 가 붙어 있다. 골목길에는 옛날 라디오와 축음기가 진열된 한 국전쟁 당시의 소리사가 있고, 사진관과 이발소가 있고 연탄 가게와 옥탑방, 군것질 거리 가득한 역전 상회도 있다. 다방에 는 ‘포니2 픽업’ 자동차가 서있다. 시간이 거꾸로 날아 엄마 아빠 어렸을 적의 옛날로 우리를 데려간다.

마을의 높직한 끄트머리에 보일 듯 말 듯 자리한 학교, 폐교 된 산성 중학교다. 학교는 60~70년대의 모습을 재연한 추억의 학교로 재탄생했다. 이름은 정답게도 ‘엄마아빠 어렸을 적 에’. 전시실에는 6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생활상, 정치, 경제, 대중문화 등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물건들이 전시돼 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상주하고 있어 언제든 설명을 들을 수 있 다. 여행칼럼니스트 [archigoom@naver.com](mailto:archigoom@naver.com)

